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매서운 추위가 물러나고 땅 위의 얼음이 녹아 흐른다는 '우수(雨水)'를 지냈습니다. 절기는 숙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차가운 바람 끝에 물어오는 촉촉한 봄기운은 만물을 깨우는 자연의 다정한 문안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얼어붙은 대지 아래에서 묵묵히 생명을 길러내는 흙의 인내와, 그 흐름에 발맞추어 묵묵히 보듬을 가는 농부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기까지

온 우주의 기운이 응축되듯, 농민들은 이 거대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싹틔우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 따스한 봄의 전령 앞에서도 우리 농촌의 틀녘은 여전히 한겨울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땅을 일구는 데 들어가는 기름값과 비료대, 전기료 같은 영농비용은 천정부지로 솟구쳐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지만, 정작 그들이 땅 흘려 거둔 농산물의 가치는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를 짓누르는

농민들이 눈을 같이했으며 피눈물을 흘려도, 도시의 소비자가 식당이나 마트에서 체감하는 가격 하락은 거의 미미합니다. 결국 농산물 가격 억제는 서민 물가 안정에 실질적인 해답이 되지 못하면서, 농민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작한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는 이러한 불균형은 농민과 도시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려 놓았습니다. 땅 흘려 농사지어

산을 지원하는 시혜적 대책이 아니라,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명의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이제는 차가운 물가 지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생존을 북돋우며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 앞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손을 따뜻하게

우수(雨水)에 띄우는 편지: 농민의 땀과 우리의 책임

고물가의 파고는 사실 난방비와 기름값, 통신비, 공과금처럼 거대한 자본과 공공 영역이 얽힌 복잡한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거센 물가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유독 힘없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을 여누르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듯 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농민이 땅 흘려 거둔 원물 농산물이 가격이 전제 소비자에게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쌀값이 폭락해

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실 속에서 농민들은 평생 지겨운 삶의 타전에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공동체의 뿌리인 농촌을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양곡법과 농업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생산비조차 견디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 그 차액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

맞잡는 '이웃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의 고단한 삶을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히 살피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값'을 윤리적으로 소비에 동참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전환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수를 지나 곧 다가올 경칩의 활기찬 생명력처럼,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희망의 봄을 일구어 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땅을 지키는 이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복음의 걸음일 것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기독교교육학 박사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전문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거권기독교연대 공동대표

구약 성경은 이자 없이 돈이나 양식을 꾸어간 가난한 사람이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제7년인 안식년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한다. 이와 같이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의 대표적인 본문이 신명기 15장이다. 신 15:1, "매 칠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칠년 끝"은 제7년인 안식년을 가리킨다. 그리고 "면제하라"는 것은 문맥에서 '빚을 탕감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밋타'의 동사형은 '좌파트'인데, 그 중요한 뜻은 '해방하다'(release)이다. 이어지는 신명기

선포하였음이라." 여기서 '독촉하다'로 번역된 '나가쓰'는 단순히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끌고 가서 종으로 부리면서) 압제하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가쓰'는 애굽의 바르가 감독들을 통해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압제할 때 그 감독들에 대해 사용된 단어가기 때문이다(출 3:7; 5:6, 10, 13, 14). 따라서 안식년 부채 탕감은 단순히 빚을 없애 주는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노예 해방의 차원이 있는 것이다. 안식년에 모든 채권자는 가난한 히브리

가난한 사람을 위한 부채 탕감-1

15:2-3에서 '좌파트'가 두 번 사용되는 데, 제7년 안식년에 '사람을 해방하여 빚 탕감을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23장의 안식년 본문인데, 여기서는 제7년 안식년에 '땅을 해방하여 쉬게 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출 23:11, "갈지 말고", 좌파트). 이처럼 제7년 안식년에 '땅을 해방하여 쉬게 하라'와 '사람을 해방하여 빚 탕감을 하라'에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 동일하게 '해방'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안식년에 땅을 쉬 없는 농사로부터 해방하여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가난한 사람을 빚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컨대, 안식년의 정신은 땅과 사람 모두에 대한 해방과 안식이다. 신 15: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사람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야 한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끌고 가서 종으로 부리면서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면제로 번역된 '쉐밋타'의 중요한 뜻은 해방이다. 곧 여호와를 위하여 해방을 선포했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라이도나이)라는 말씀은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했다면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로 표현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로 표현되었다. 왜 '여호와를 위하여'일까?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고 나서 그 빚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느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이를 위해 마음을 크게 쏟으시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신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묻는다. "많이 바쁘시지요?" "아, 네. 일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일이 많기는 하다. 그래도 나는 바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 보다는 일이 많은 것이 좋기는 하다. 말은 행복을 만든다. '이것저것 하니가 힘들다'라고 말하면 힘이 든다. 재미가 없다. '이것저것 하니가 재미있다'라고 말하면 힘이 들어도 지루한 재미있다고 말하면 인생이 더 재미 있어진다. 바쁘다고 하면 지루한 마음이 조금 해 진다. 마음으로는 여유를 가지도 말로는 긍정의 말이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법>이라는 글이다. 봄이 오면 민들레를 뽑아 내느라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있

었다. 철쭉과 튜립이 핀 꽃밭에 민들레 꽃씨가 날아와 여기저기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 이웃집 사람이 말했다. "저희들은 민들레를 뽑지 않고 그냥 뒀요, 예쁜 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웃의 말을 듣고 그는 무릎을 쳤다. 민들레를 쓸모없는 잡초가 아니라 꽃으로 여기면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송(宋)나라의 학자 주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악장제거

것을 하늘에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라는 유대인 속담이 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최악이 아님을 감사 할 줄 알아야 하고 살아 숨 쉴 수 있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과 남은 것 중에서 늘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한다. 하지

그러면 그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외쳐보자! "와 신난다.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 "오늘 하루도 신나고 즐거운 일로 가득 하겠구나" "오늘도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니 참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가족과 집이 있어 너무나 좋다" "나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기뻐진다" "오늘도 나는 배울 것이 많아서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다" "나는 오늘 나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많은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다" 지금 내가 바빠야 할 마음 가짐이나 말은 무엇일까?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정통합 전담교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신명찬 미래, 2 저자

"전분세락(轉糞世樂)과 말의 힘!" 무비초(惡將除去無非草)호취간래 총시화(好取看來總是花). "나쁘고 고 베어버리자니 풀 아닌 게 없고, 좋다고 두고 보지나 모두가 꽃이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나의 태도에 달렸다. 주변의 사람들을 잡초로 여기면 잡초밭에서 살아갈 것이고, 꽃으로 보면 꽃밭에서 열락(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은

만 내게 무엇인가 남아 있고 그 걸 바탕으로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비록 모두 다 잃었다고 해도 내 몸이 성하다면 그보다 고마운 일은 없을 것이다. '전분세락(轉糞世樂)'이란 말이 있다. 개똥밭에 똥굴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더 낫다는 뜻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생각을 바꾸면 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벚엘교회 교육관(디모데관) 철거공사 입찰공고

1. 공사명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벚엘교회 교육관(디모데관) 철거공사
2. 발주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벚엘교회
3. 공사개요	1)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22-11 외 2) 대지면적: 861.5㎡ 3) 건축면적: 지하 1층 371.32㎡, 지상5-6층 1,694.18㎡ 4) 연 면 적: 2,066㎡ 5)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
4. 입찰방법	지명경쟁입찰
5. 철거공사 예정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 낙찰 / 총액입찰서 제출 (VAT포함)-공사 제외 품목 상세기재
7. 제출서류	1) 지명원(견적서 포함) 2) 경영상태 및 사경여유를 확인서 (대한건설협회발행) 3) 신용평가서 (한국신용정보발행) 4) 철거공사실적(최근 3년간) 확인서 (대한건설협회발행) 5)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원
8. 공사범위	1) 철거 및 폐기물처리, 반출(정화조, 지하시설, 기계기구, 가스시설, 펌프, 현장정리, 상하수도시설, 조경수, 기타 지상, 지하 건물 내·외에 있는 일체 구축물 포함) 2) 멸실에 따른 심의 및 인·허가, 석면신고 등 대관업무 일체 3) 철거공사시 민원처리 및 해결, 안전사상, 현황조사
9. 입찰 및 낙찰자 발표	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가 2) 현장설명회: 2026년 3월 20일(금) 14시, 광주벚엘교회 철거현장 직접견학설명(디모데관) * 설명회 미참가 업체 입찰 참여 불가 3) 서류마감: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4) 낙찰자 발표: 개별통보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본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1) 위(변)조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는 심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함. 2) 입찰관련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계약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 4) 예정가격에 감리비 포함 5) 교회전화: 062)367-1004 6) 낙찰자는 유선통보 함

2026. 03. 11.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벚엘교회 건축위원회

건축물 유지보수 외부 · 외벽공사전문

옥외간판 · 십자가 · 외벽 유리청소 · 방수, 페인트
시의 장거리가능 / 건물가치와 수명연장
1톤 · 3톤 · 5톤 굴절스카이 전차중 임대 가능
경미한 공사 환영

건축물외부, 외벽공사
안전장비 고소작업 스카이라와
전문인력으로
고객님께 다가겠습니다.

그린텍 손전화 010-3641-0675 김종운집사